환경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12.(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12. 11.(월)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 배출되는 폐수가 법정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업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2월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등이 대상

이 외에도 업계와 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는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폐수 내 염분이 높아질 경우에 폐수처리공정 효율 저하, 시설 부식 등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이번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반 운영과 병행하여 이차전지 제조 기업·협회 등과 함께 하는 소통 창구(협의체)를 개설해 폐수처리 관련 애로사항과 우수 사례를 나누고 현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기술지원반의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물환경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이차전지산업 폐수처리 기술지원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김양동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연구관	신진수	044-201-7065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장	박주현	032-560-7420
	물환경공학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김재훈	032-560-7439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장	주충남	032-590-3980
	생태독성관리부	담당자	차장	김동춘	032-590-3981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장	최재관	032-590-4510
	수생태설계부	담당자	차장	조운성	032-590-45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이차전지산업 폐수처리 기술지원 개요**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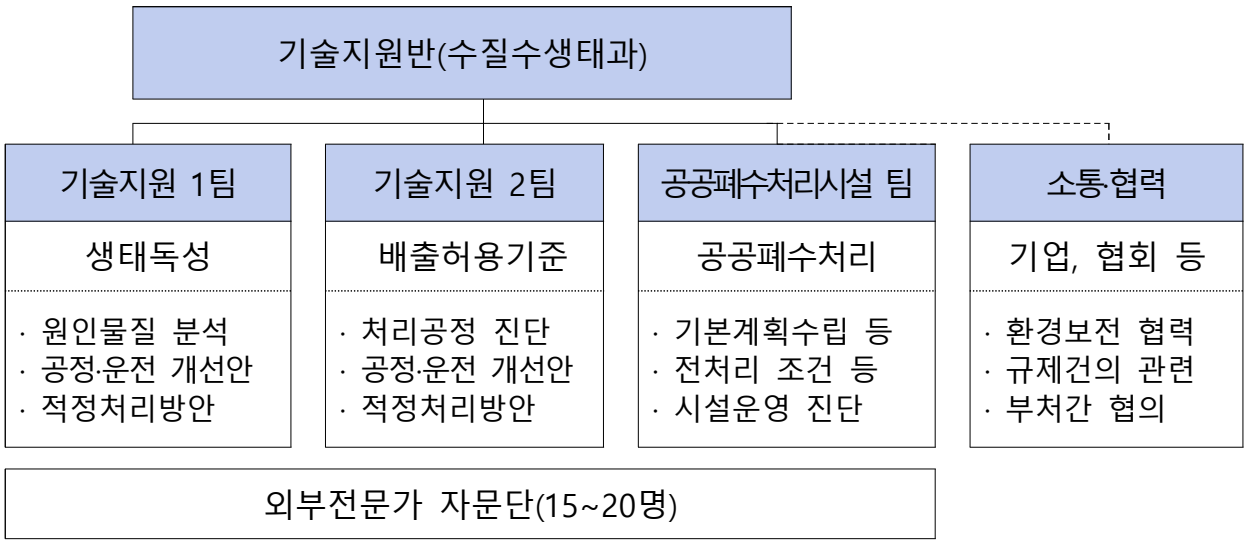
○ 국내 이차전지 관련 산업으로 현재 운영중이거나 신·증설계획이 있어 ①생태독성 또는 ②배출허용기준 관리가 필요한 기업

○ 이차전지 제조 관련 기업의 폐수를 유입하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자 중 ③운영시설 진단,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을 받고 싶은 곳

□ 추진계획

○ (지원 시기) '23년 12월13일부터 ※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 (신청 방법) 수시 신청(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반 편성) 생태독성, 공공폐수처리 등의 분야로 나누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담당자로 전문팀을 편성하고 자문단과 함께 운영 ※ 민간 전문가(학계·유관업계 등)로 외부자문단 구성

○ (소통 협력) 이차전지 제조 분야 기업과 협회 등을 대상으로 △폐수·환경관리 관련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공유, △규제개선 건의와 협의, △범부처 협력 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24.1~)